

'그대로괜찮은쿠키'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 모양의 쿠키입니다.

팔이나 다리 한 쪽이 짧은 형태가 익숙하지 않아
잘못 만들어진 쿠키처럼 보일 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쿠키는 모양이 조금 다를 뿐,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맛있는 쿠키입니다.

그대로괜찮은쿠키는 장애인의 모습을 틀린 것,
이상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키가 작거나 크거나 하는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라는 말에서 시작된
'그대로괜찮은쿠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대로괜찮은쿠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괜찮다고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괜찮은쿠키의 가치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키 활용 교육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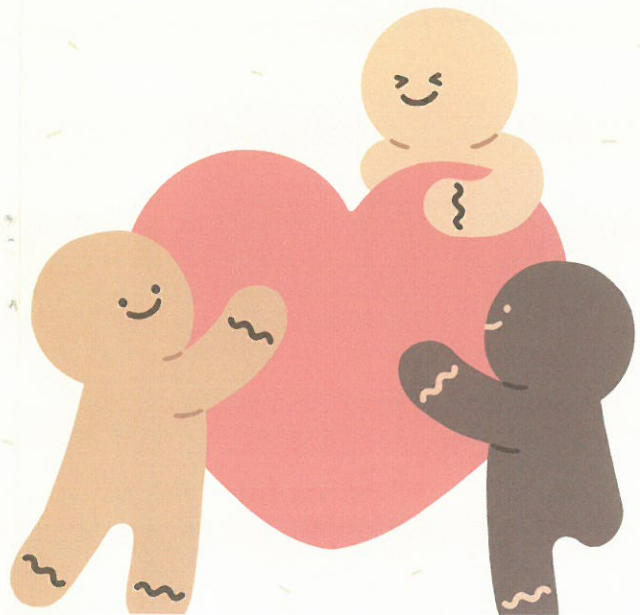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선

장애인 - 비장애인 표현을 준수해주세요

장애인과 구분하기 위해 정상인, 일반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언어적 표현으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정한 모습만을
'정상'으로 규정짓지 않는 것이 그대로괜찮은쿠키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쿠키의 모양을 '틀린 것', '이상한 것' 등으로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그대로괜찮은쿠키는 이 모습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쿠키입니다. 익숙한 모습은 아니지만 틀리거나
이상한 것이 아닌 그저 다른 형태의 쿠키임을
기억해주세요!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그저 키가 작거나 큰 것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구분지어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